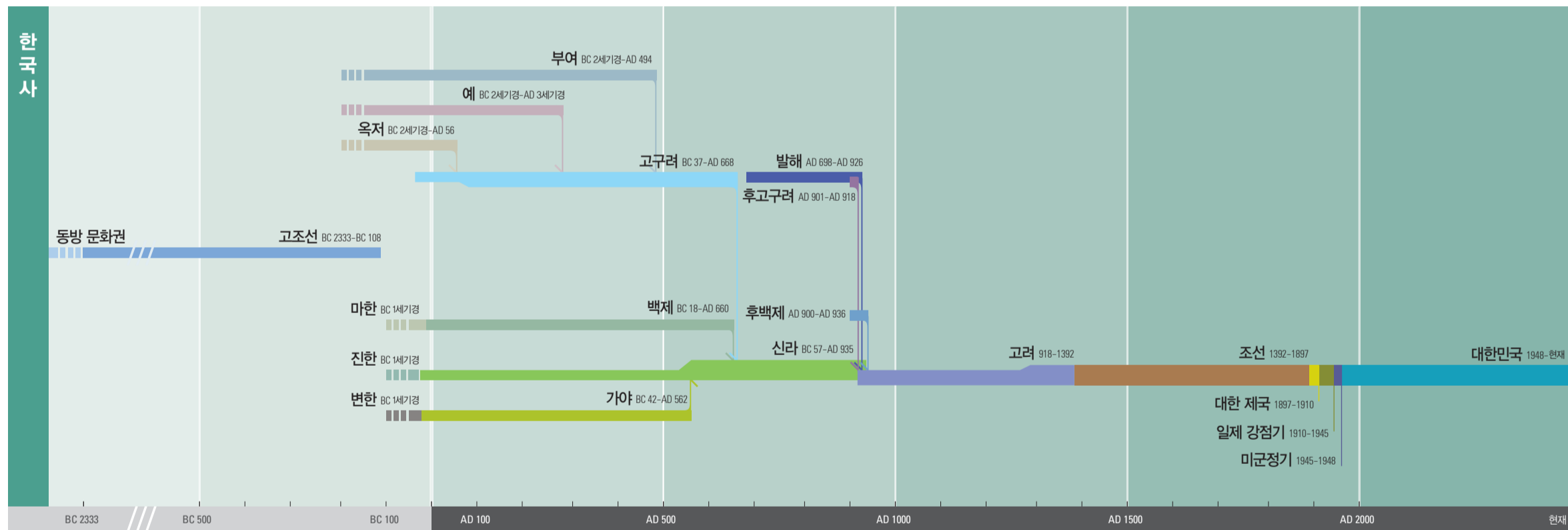


영토사

한국사 연표



대한민국 고대의 역사는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기원전 2333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립되었으며, 고조선 시대는 기원전 108년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부여와 동예, 옥저, 삼한의 부족 국가가 성립되었다.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 원삼국 시대라 하며, 만주와 한반도 전체가 원삼국 시대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강역이었다. 부여의 세력권은 주로 만주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동예와 옥저는 한반도의 북부와 중부, 마한과 진한, 변한의 삼한은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에 위치하였다.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 사이, 이전의 부족 국가들을 계승하고 병합하며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가 건국되었다. 이 시기를 삼국 시대라 하며, 이 시기 역시 만주와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 역사의 강역이었다. 고구려는 주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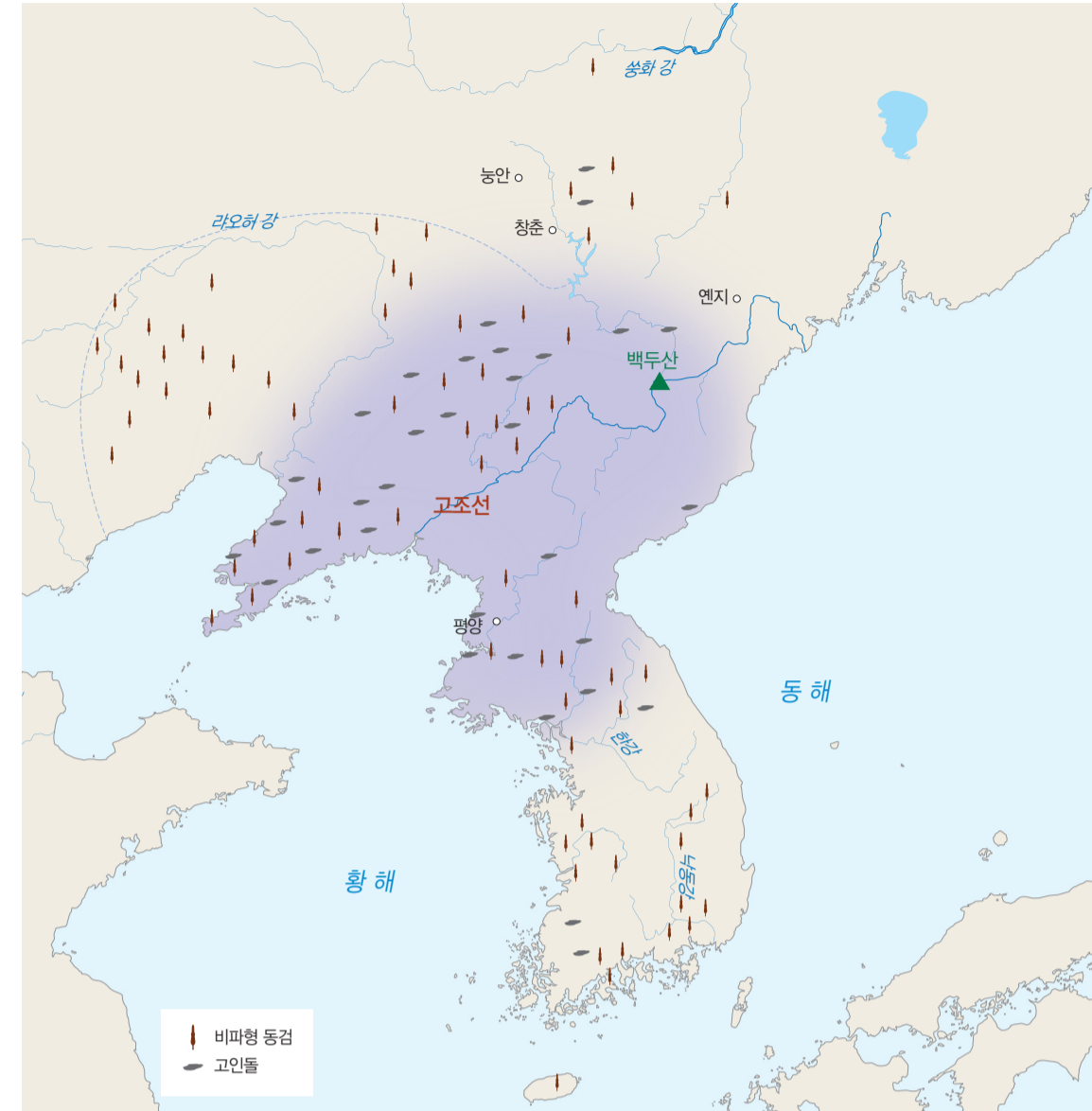
심으로 하였고, 신라는 한반도의 동남부, 백제는 서남부를 중심으로 하였다. 7세기를 전후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하며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한반도 내부 영역에서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698년 고구려 유민에 의하여 발해가 건국되었다.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는 북방 영토를 개척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고려는 993년 거란의 1차 침입을 막아 내며 강화 회담을 통하여 강동 육주의 점유를 확인하였고, 1033년부터 천리 장성을 축조하여 거란·여진과의 경계로 삼았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신의주에서 함흥 인근을 잇는 영역으로의 북방 영토 회복을 이루었고, 이후 고려 후기에 이르기까지 북방 영토 확장 노력을 지속하였다. 조선 시대에도 북방 영토 확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15세기 조선은 압록강 유역에 사군을,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하였다. 이는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는 현재 대한민국 영토의 회복을 의미한다. 18세기 조선은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당시 중국 청(淸)과의 국경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근대와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는 조선에 이은 대한 제국의 성립, 일본에 의한 강점과 독립, 미국과 구소련에 의한 군정과 6·25 전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국제 사회의 제국주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고종은 1897년 대한 제국을 선포하고 내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던 일본에 의하여 1910년 강점당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은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일제 강점기라 하며, 일제 강점기는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 운동은 국내외에

서 지속되었고, 일본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과 함께 우리 민족은 독립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는 북위 38°선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며, 이와 같은 분단은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며 고착화되었다. 이후 남과 북은 1950년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3년 넘게 지속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중단되었고,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60여 년 간 휴전 상태인 채로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60여 년 간 남한과 북한은 경쟁과 대립의 역사를 이어왔으나, 이산가족 상봉과 정상 회담, 개성 공단의 운영 등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고대의 강역

고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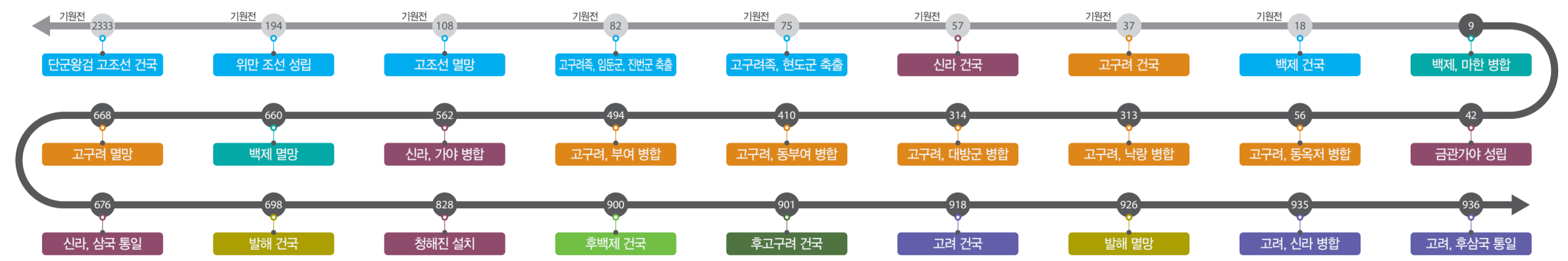
기원 전후



5세기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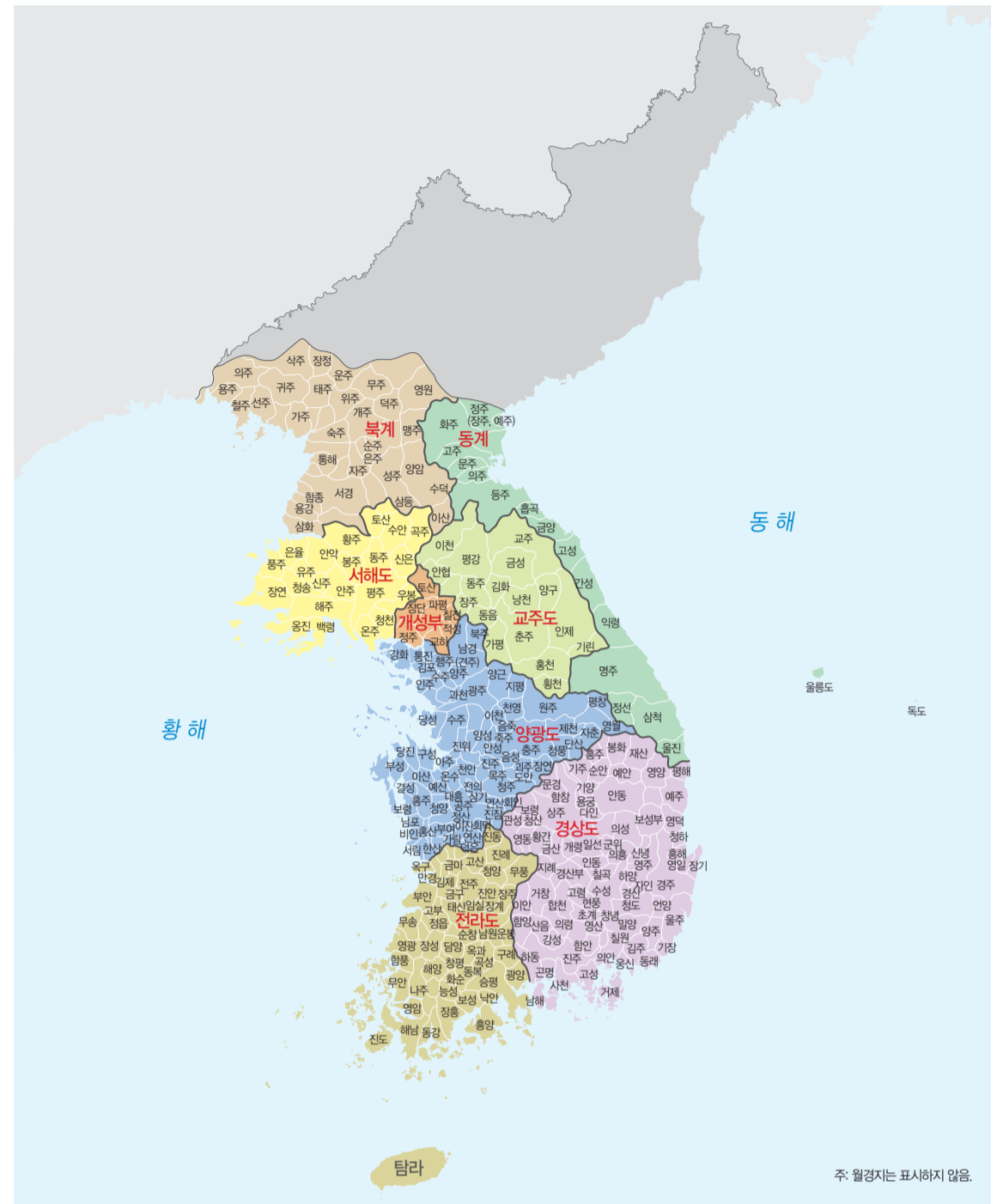


9세기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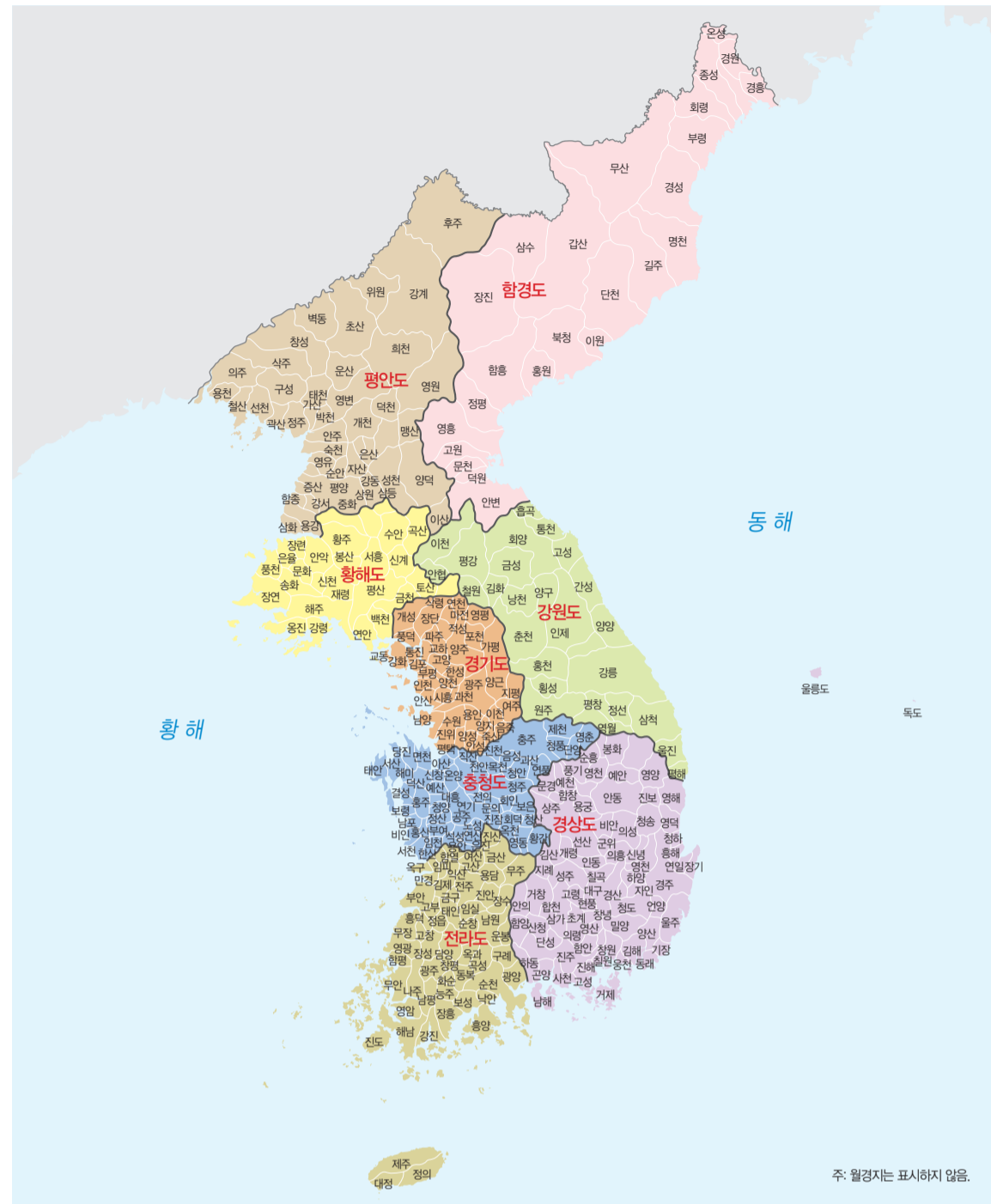


중세 · 근현대의 영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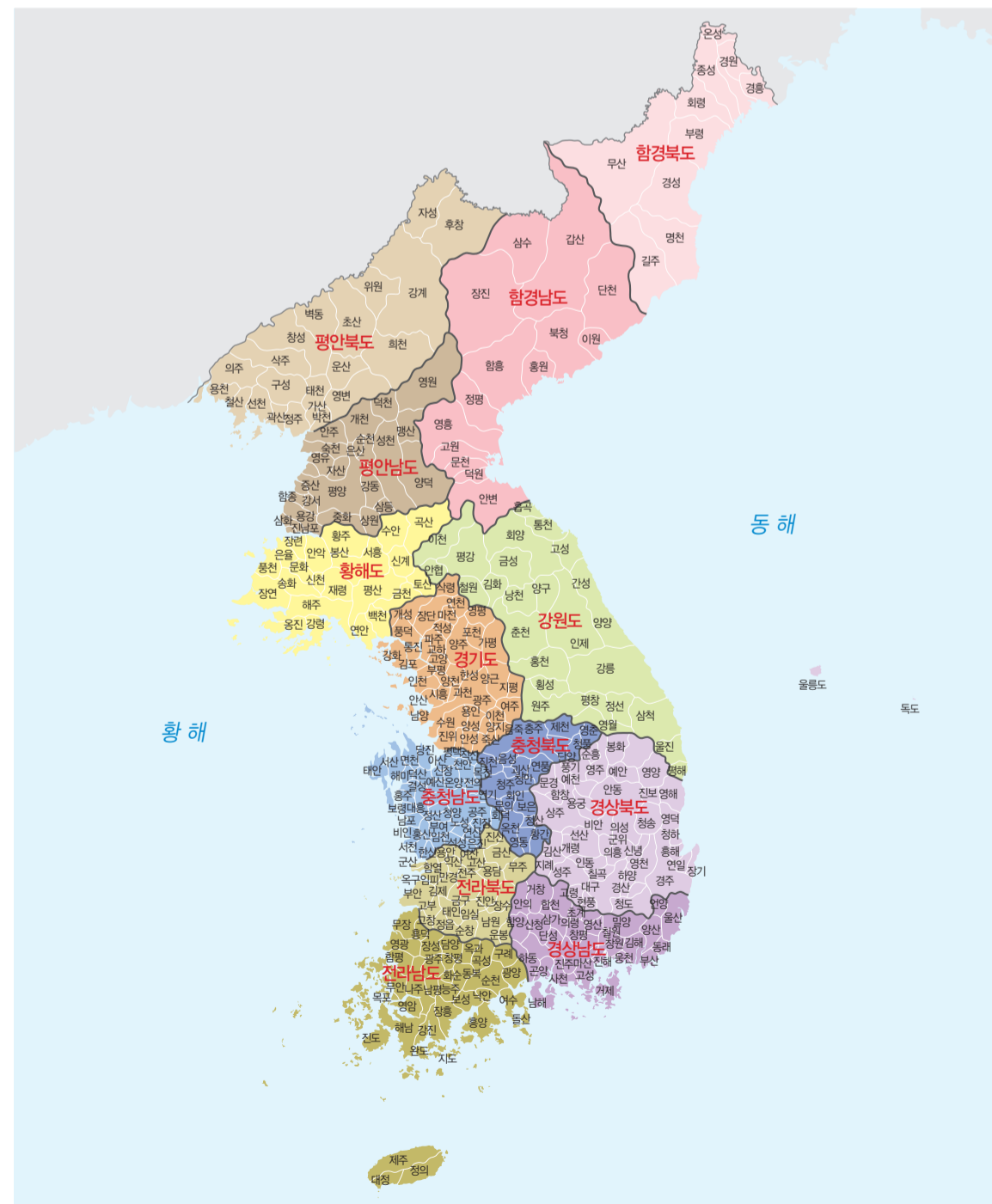
고려 시대(11세기)



조선 시대(186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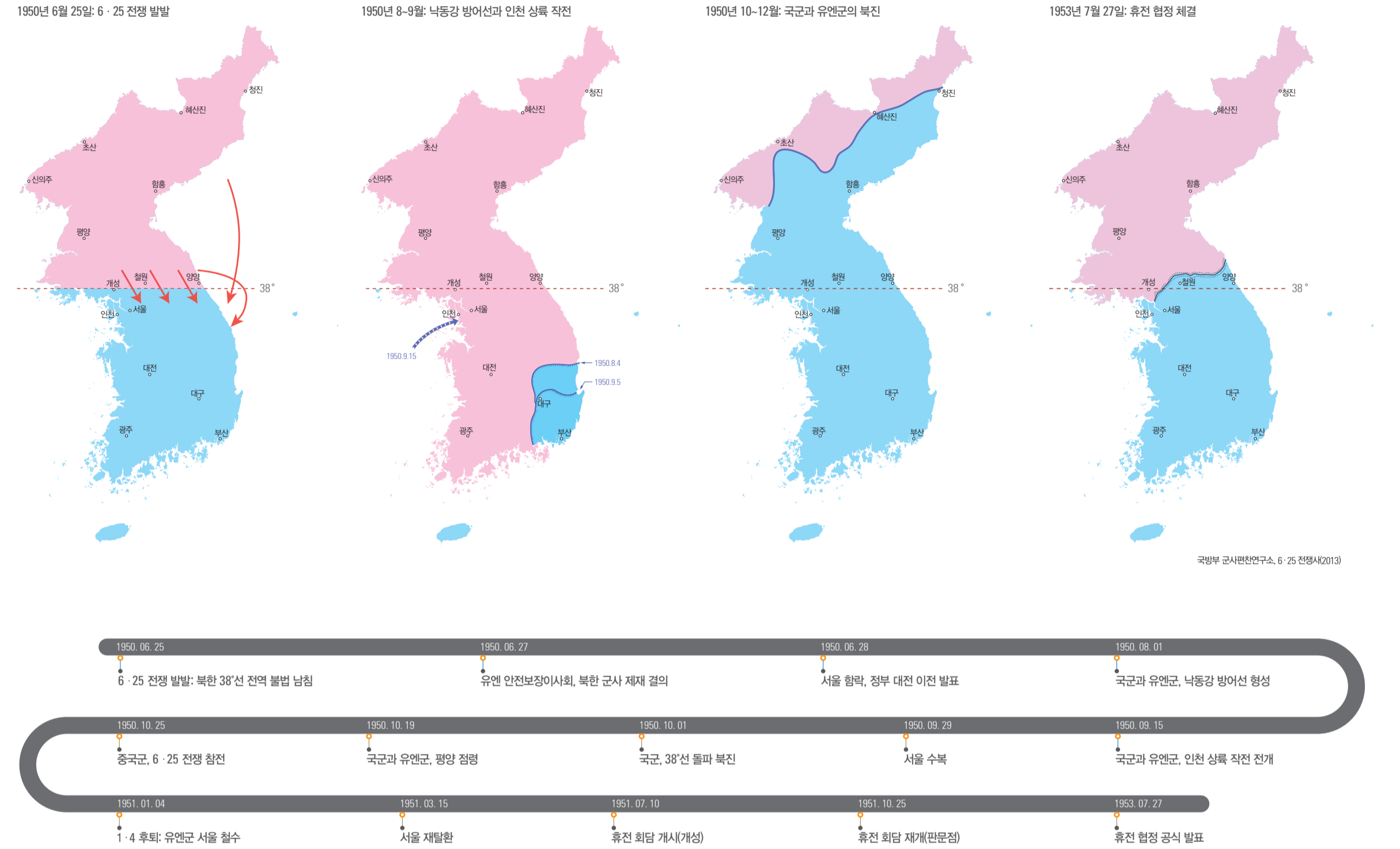
대한 제국(18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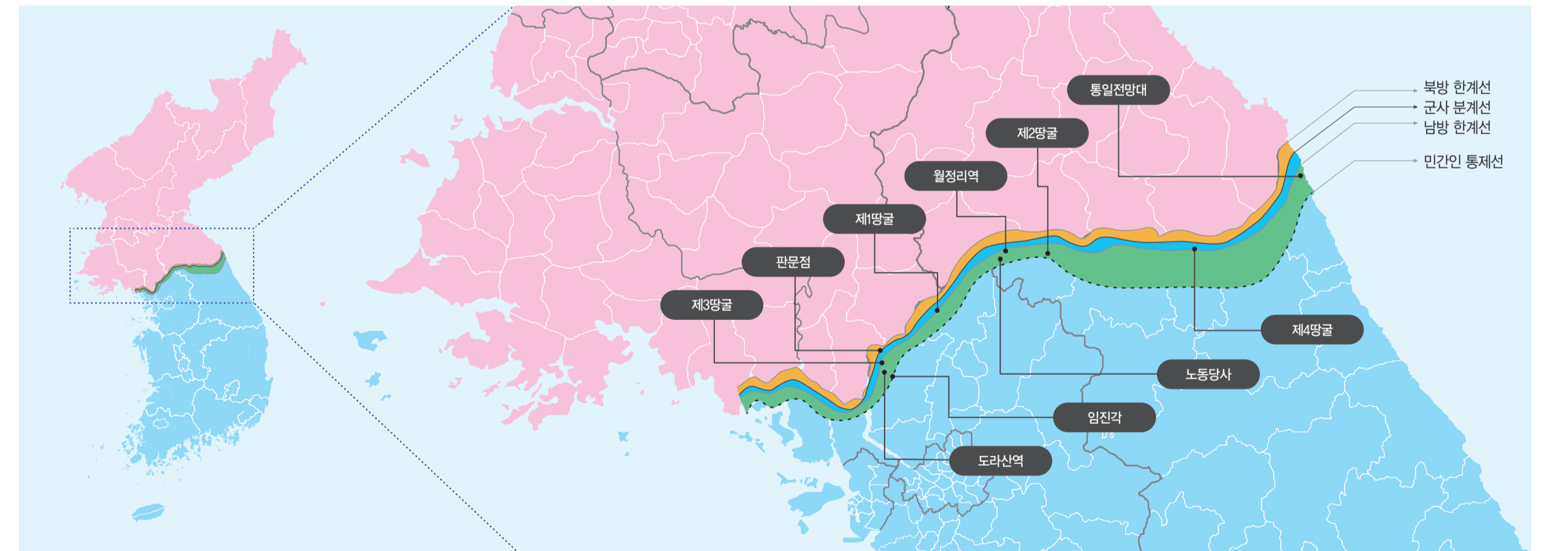
광복 직후



6·25 전쟁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 구역



비무장 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무장이 금지된 완충 지대를 말하며, 군대 주둔과 무기 배치, 군사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이다. 대한민국의 비무장 지대는 6·25 전쟁의 휴전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1953년 휴전 협정 조인 당시의 군사 접촉선이 군사 분계선이 되었으며, 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 총 4km 폭의 구역을 비무

장 지대로 설정하였다. 민간인 통제 구역은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선 사이의 구역이다. 민간인 통제선은 법적으로 고도의 군사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군사 분계선 인접 지역으로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된 출입 통제선이다. 민간인 통제선은 1954년 처음 설정되었으며, 재산권의 제약은 해소하는 측면에서 현재까지 3차에 걸쳐 민간인

통제 구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민간인 통제선은 군사 분계선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어 있다.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 구역은 일부 민통선 마을의 경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인간의 접촉이 최소화된 공간이다. 이에 따라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 구역에는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사향노루, 신양, 수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와 같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1급 동물들과 담비, 하늘다람쥐, 참매, 날개하늘나리 등의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 동식물들이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전쟁 및 군사와 관련된 역사적 유적 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접경 지역 관광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